

2025 년 4 월 20 일 “(부활절) 삶 속에서 피어나는 삶”(고전 15:45-49)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삶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삶 너머 또 다른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한번 만은 아닌 삶>

오늘 본문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대조하고 이어서 첫째 아담은 자연적이며(흙에서 남), 둘째 아담(그리스도)은 신령하다(하늘에서 남)고 말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삶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삶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첫째 삶은 희로애락,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의 종합판입니다.

이 삶 안에는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잘못으로 생긴 일도 아니고, 때로는 예방할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 속에서도 부활생명으로 이끄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써 끝 날까지 이끄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면>

부활생명은 내가 잘해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부활생명은 하나님이 끝까지 선하고 사랑이 크심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부활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2025 년도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진정으로 내 삶에 관여하심을 믿고 새생명의 축복을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지금까지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2. 그리스도인을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는 길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